

연구논문

유럽통합의 강화 및 확대과정과 한국기업의 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

정성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1980년대 중반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sation)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통합의 경향을 강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계규모에서의 경제통합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과 같은 지역블록단위의 등장과 이에 수반된 역내통합의 강화라는 지역화(regionalisation)의 경향을 수반하고 있어 다소 역설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더욱이 보다 역설적인 것은 경제는 세계규모 또는 지역 무역블록의 규모로 통합 및 재편되고 있지만, 개별 경제활동들은 항상 특정 장소, 도시 및 지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지방화(localisation)의 경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Phelps and Alden, 1999: 1).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는 상이한 지리적 규모들을 토대로 하여 늘 긴장과 갈등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Dunford and Kafkalas, 1992; Dicken, 1994).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경향들이 ‘한국기업의 대(對)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얼마나 역설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필

자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동안 한국기업의 대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인 ‘불안정성’(Jung, 2000)이 각기 다른 공간적 규모에서 야기되는 정치경제적인 변화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대(對)유럽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시기적으로 유형화하여 고찰한다. 이는 한국투자와 유럽통합과정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둘째, 유럽통합의 강화의 견지에서, 유럽연합의 역외생산자들에 대한 무역규제와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이 한국기업들의 유럽의 도시 및 지역들로의 진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게 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유럽연합의 한국기업들에 대한 무역규제와 한국의 대유럽연합 직접투자의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는 지리적 규모로 볼 때, 유럽연합이라는 지리적 단위가 한국 대유럽연합 투자의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국민국가 및 그에 속한 지방이라는 지리적 영역을 초월하여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단일유럽’을 기치로 유럽통합(지역화)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견지에서, 해외투자유치를 둘러싼 회원국가들간, 도시 및 지방들간의 경쟁은 하나의 역설이다. 이는 유럽연합 내 한국투자의 불균등한 분포, 즉 특정 국가들, 도시 및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산업, 무역 및 지역 정책적인 맥락에서, 유럽연합규모에서의 무역‘규제’와 국가 및 지방규모에서의 외국인 투자‘개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개별정책들이 상호 융화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Jung, 1999b). 이는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 경향들간의 갈등과 긴장의 전형이다.

2.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 동향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대유럽 외국인투자(inward di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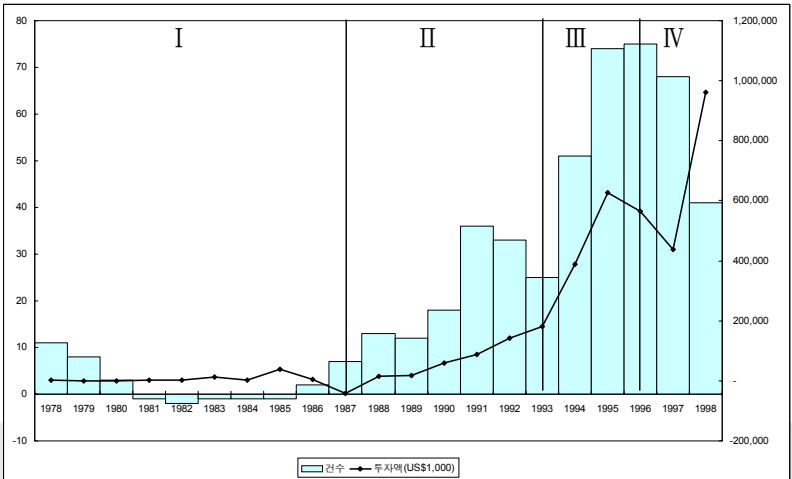
investment) 흐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가속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UN, 1996). 이러한 투자 경향은 유럽통합의 강화 및 확대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증한 한국의 대유럽 및 유럽연합의 투자동향 역시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유럽투자의 견지에서, 한국 투자의 특성은 네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I. 수출시장 확대에 토대를 둔 시장추구형 투자(1978-1987), II.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에 대응한 제조업 중심의 방어적 투자(1988-1993), III. 방어적 속성을 지닌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유럽연합) 및 공격적인 투자(동구유럽)(1994-1996), IV. 1997년 한국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의 표류.¹⁾

이와 같은 시기적 유형화는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그림 1). 첫째, 시장추구형 투자(제1기)에서 방어적 투자(제2기)로의 이행과정이 지닌 함의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투자는 유럽, 특히 서유럽의 개별국가 시장을 겨냥한 시장침투형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 당시 투자는 주로 무역관련 판매법인 및 지사들의 설립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강화된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의 강화는 기존 한국 투자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제2기 동안 한국투자는 주로 유럽연합의 무역규제 회피를 통한 방어적 투자이었으며, 제조업중심의 투자로 전환된다(Jung, 1999a). 유럽통합의 강화는 무역규제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규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기존 무역규제가 서유럽의 개별 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것이라면, 이 시기부터의 무역규제는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인 기구에 의해서 취해지게 된다. 이는 기존 국가중심의 통합과 보호주의 정책이 보다 확대된 초국가적인 지역 통합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제시해주는 좋은 증거이다(Phelps, 1997: 21).

둘째, 방어적 투자에서 제3기로의—‘방어적 속성을 지닌 공격적인 대규모

1) 이에 대한 자세한 제시로는 융(Jung, 1999b) 참조.

<그림 1>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 추이에 대한 시기적 유형화



주: I—시장추구형 투자(1978~1987), II—제조업 중심의 방어적 투자(1988~1993), III—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유럽연합) 및 공격적인 투자(동구유럽)(1994~1996), IV—1997년 한국금융위기 이후의 투자의 표류(1997~)

출처: 한국은행(1996),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한국은행연합(1998),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에서 필자 재구성

모 투자계획(유럽연합) 및 공격적 투자(동구유럽)’-이행이다. 이 시기 투자는 당시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맥락에서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으로 인한 한국 대기업들, 특히 재벌들의 국제 신용도 상승은 유럽연합에서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이 시기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만성적으로 대량실업에 시달려온 회원국들과 회원국들의 개별 지방정부들은 본격적으로 한국투자유치경쟁에 나서게 된다. 이는 1980년대 서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강화되었던 유럽통합과 기존 국가중심의 정치경제 단위를 지방단위로 이양했던 동향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1990년대 동안 서유럽에서는 특정 투자유치를 놓고 국가단위의 경쟁이 아닌 지방단위의 경쟁이 강화되어왔으며,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방간 경쟁을 통해 유치되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영국 북동부에 3,000여명, 구동독 지역에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LG전자는 영국 웨일스 지역에 6,000여명의 고용창출을, 대우전자는 프랑스 로렌 지역에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유럽의 중소규모 도시들의 강력한 경제 기반이 될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투자철회, 투자계획 지연 등으로 인해 하나의 '계획'으로 그치고 만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동구유럽투자의 급진장이다. 이는 주로 대우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 당시 투자는 1980년대 후반이후 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후 그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보다 활발한' 투자개방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유럽의 투자가 가능했던 배경도 유럽통합의 확대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005년 몇몇 동유럽국가들의 서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현실화되어가고, 이와 더불어 서유럽연합과 동유럽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 철폐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서유럽연합 내 입지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저비용입지'를 추구하면서 동유럽국가들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셋째, 제3기에서 제4기로의 이행이다. 이 시기는 제3기에서의 한국 재벌들의 과잉투자계획에 대해 몇몇 유럽언론들이 가졌던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1997년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자마자 유럽연합 내 한국 재벌들 및 중소기업들은 투자계획 축소, 동유럽으로 입지이전, 고용축소, 공장폐쇄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한국투자가 유럽의 지역에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표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투자의 불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유럽연합 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금융위기 이후 한국투자의 불안정성은 금융위기 자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 불안정성이 강

화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투자의 본질, 즉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에 대한 ‘방어적 투자’의 한계에 기인한다. 제품생산이나 상품시장의 견지에서 기업의 전용기술의 확보없이 단순히 무역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고임금의 서유럽에서 비용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한국 3대 가전업체의 컬러TV, VCR 생산에 있어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동구유럽을 향한 유럽통합의 확대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에게 동구유럽으로의 입지이전을 통한 저비용입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동향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기업들의 대유럽 투자는 유럽연합의 통합과 확대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한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는 5가지 주요 동력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유럽연합의 무역규제 강화, 2) 유럽단일시장의 형성, 3) 회원국들의 외국인 투자개방정책, 4) EU 주변지역(경제적 낙후지역)의 외생적 지역발전전략, 5) 구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²⁾ 이후 장들에서 이러한 동력들과 한국투자와 관계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 이 논문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동력들 중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을 제외한 나머지 동력들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속화된 한국투자에 있어서 기대효과나 잠재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동력이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간 투자 및 미국의 투자에 미친 영향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럽투자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한국투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다소 미미한 편이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1992년 유럽단일시장 창출’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유럽의 기업들은 대대적인 합리화 및 인수·합병을 통한 활발한 투자를 감행했고, 이 시기 구조조정의 초점은 미국과 일본의 초국적 기업에 대항하여 개별 국가의 챔피언으로서의 기업육성이 아닌 유럽의 챔피언으로서의 기업육성을 촉진시키는 데 있었다(Krum, 1991; Amin, Charles and Howells, 1992; Dunning, 1993; Dent, 1997; Phelps, 1997).

3. 유럽통합의 강화: 유럽연합의 무역규제강화와 한국기업들의 대유럽연합으로의 진입

역외생산자들에 있어서 유럽통합(지역화)의 강화는 두 가지 쟁점들과 관련된다. 첫째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을 통하여 역외생산자들의 유럽연합으로 상품수출을 규제하는 무역정책을 들 수 있다. 둘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책적 목표로서 가시화되었던 ‘1992년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이다. 첫 번째 쟁점이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을 해오지 않았던 역외생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쟁점은 역내 유럽 및 비유럽 생산자 모두에게 관련된 사항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제조업투자를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던 유럽연합의 무역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어, 유럽통합의 강화와 한국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중·후반이후 유럽연합은 한국상품들에 대한 무역규제(특히, 반덤핑규제)를 강화시켜 왔다(<표 1>). 이러한 무역규제는 특히 한국 전자제품에 관한 반덤핑 규제로 대표되는데, 유럽연합 내에 제조업 기반이 없었던 한국 전자기업들에게는 기존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Shin, 1998). 실제로, 1990년대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대륙이 취한 반덤핑 규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13건으로 미국의 두 배, 호주의 13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Jung, 2000). <표 1>에서 제시되었듯이, 한국기업들은 반덤핑 조사개시, 잠재덤핑, 덤핑 확정 판결을 전후로 유럽연합에 투자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덤핑판결의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의 입지이전 또한 활발하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투자의 불안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존 정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유럽연합 투자와 관련지어 제시된 내용들 중 특히, ‘첨단기술 습득의 가능성을 겨냥한 투자’라는 요인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대유럽연합투자는 ‘첨단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

< 표 1 > 한국가전제품에 관한 EU 반덤핑규제와 한국 가전기업들의 진입

제품	연도	EU반덤핑 규제 ¹	한국가전기업의 투자 ²
전자레인지	1986	조사개시	
	1987-88	덤핑철회	덤핑철회 전 삼성투자(영국; 1987중반)
			덤핑철회후 삼성투자철수(영국; 1987 하반기)
			대우투자(1988)
	1995	덤핑확정	LG투자(영국; 1995)/삼성투자(영국; 1995)
컬러TV(소형)	1987-88	조사개시	LG투자(독일; 1987)
	1989	잠재덤핑	
	1990	덤핑확정	삼성투자(영국; 1992)/대우투자(프랑스; 1994)
비디오	1987	조사개시	LG투자(독일; 1987)
	1988	잠재덤핑	대우투자(영국; 1998)/삼성투자(영국; 1998)
	1989	덤핑확정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	1987	조사개시	
	1989	잠재덤핑	해태(프랑스; 1989)
	1990	덤핑확정	인켈(영국; 1990)
테이프릴	1989	조사개시	새한미디어(아일랜드; 1987)
	1991	잠재덤핑	SKM(영국; 1992)
비디오테이프	1987	조사개시	새한미디어(아일랜드; 1987)
	1988	잠재덤핑	
	1989	덤핑확정	SKM(영국; 1992)

출처: 1. National Consumer Council, 1990, "International Trade and the Consumer," Working Paper 1: Consumer Electronics and the EC's Anti-Dumping Policy.
2. 필자 조사(1997)

출 것이 아니라, 방어적 투자를 통한 기존 수출 시장점유율의 유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한 예로, 한국 가전산업의 경우, 컬러 브라운관의 시장점유율이 세계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위의 요인은 연구자들의 인터뷰시 기업의 투자 및 입지의사결정이전의 기대효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유럽연합 내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를 보는 주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무역규제로 대표되는 유럽연합의 강화된 지역화과정 통해 한국기업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및 그들의 도시 및 지역들과 어떠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강화는 한국의 대유럽연합 직접투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규모가 기존 국가나 도시 및 지방의 영역을 초월한 ‘초국가적으로 형성된 블록화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순수 지리적 규모인 ‘대륙’이라는 것과는 다른 ‘경제·사회·정치적으로 설비된 제도화된 거대단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과 ‘유럽’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힘’의 강화라는 견지에서 발현된 유럽연합의 무역규제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유럽연합 직접투자의 본질을 결정하였다. 방어적 투자(defensive investment).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에 대응하여 실행된 역외생산자들의 방어적 투자는 1960년대 미국의 대유럽공동체에 대한 투자로부터 비롯된다(Yannopoulos, 1989). 이후 1980년대 초반 일본의 유럽연합 진출이 그러했고(Heitger and Stehn, 1990; Dunning, 1993),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hin, 1998; Jung, 1999a). 한국의 경우, 1995년까지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제로 인한 방어적 투자가 한국의 대유럽연합 총 제조업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5%로 상당히 높았다(Jung, 2000). 방어적 투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중 하나는 개별 투자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방어성’(defensiveness)을 탈각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척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는 투자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유럽연합 투자의 경우, 유럽연합의 무역규제에 대응한 방어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기업들을 빠르게 퇴출시켰다. 이와 같은 빠른 퇴출의 주요 요인으로는 특정 한국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규제의 결정 반복(<표 1>) 및 한국기업의 투자이후 특정부지에서의 비용경쟁력 약화로 요약되는 현지화실패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초국가적인 힘은 기존 국가 및 국가 내 지역들을 초월하여 한국기업의 입지행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럽연합 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무역규제로 인한 방어적 투자는 두 가지 측면에

서 한국투자의 성격을 결정했다. (1) 재벌중심의 투자와 (2) 가전산업에 기반한 투자. 첫 번째 성격이 기업규모와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성격은 업종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유럽, 특히 서유럽 투자는 철저히 대기업위주의 투자였다. 1995년 현재 한국 20대 재벌의 대유럽연합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2%(금액기준), 무역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9%,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5%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이에 앞서 제시한 한국투자의 시기적 유형화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제1기와 제2기 이후의 투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1기의 투자가 무역업 중심의 시장 추구형 투자라면, 제2기 이후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무역규제는 한국투자를 제조업 내 특정업종에 치우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무역규제는 주로 한국의 가전제품들(성숙화된 제품들: 컬러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에 취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가전대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의 제조업 총투자 중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들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무역규제는 현지 가전 재벌들의 개별 공장의 성격을 생산과정, 노동과정 및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정체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 단순 조립공정에 기반한 대량생산, (2) 미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 (3) 비용경쟁력(저임금 추구)에 기반한 가격경쟁력 확보, (4) 최종제품의 시장 지배력 약화(낮은 브랜드 이미지), (5) 유럽연합 내에서 방어적으로 구축된 생산망.³⁾ 이 사례는 하나의 초국가적인 제도인 반덤핑 규제가 기업투자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기업의 생산공장 입지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투자유치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특성들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는 융(Jung, 2000) 참조.

4. 단일유럽?: 유럽연합 내 한국투자의 불균등한 분포

조화로운 단일유럽을 향한 유럽연합의 지역화는 회원국간, 도시 및 지역들간의 불균등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유럽연합 해외직접 투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불균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또는 개별 도시 및 지역)가 지닌 자원적, 환경적, 인문적 자산의 차별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자산을 지닌 국가나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국기업의 입지적 선택성 및 유럽연합 개별국가 및 도시들의 한국투자의 정책적 선택성에 기인한다. 이는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종말이나 지리적 종말을 촉진시킨다고 예견했던 주장들과는(Julius, 1990; Ohmae, 1990 and 1993) 다소 거리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의 투자가 불균등한 분포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 투자의 불균등성이 이 글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한국기업들의 유럽연합 내 개별지역에 대한 입지선택 과정은 기존의 유럽연합 내 지역불균등발전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적 규모에서,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5대 회원국-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에 집중해 있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한국 투자의 회원국별 점유율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2). 첫 번째 그룹은 영국과 독일이다. 이 두 국가는 한국 투자의 견지에서 선두다툼을 지속해 왔다. 1987년까지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1993년까지 선두자리를 영국에게 내 주었다. 이는 한국 투자의 동향이 1987년 이전까지 무역업중심이었고, 이후 제조업중심이었다는 동향과 일치한다. 한국기업에 있어서 독일은 생산기지였다기보다는 대륙시장과 동유럽시장에 접근이 용이한 판매기지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한국제조기업들이 영국으로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그 선두를 바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 이들간의 선두다툼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독일 통합 이후 몇몇 한국제조업

K C I

체들의 구 동독지역으로의 진출과 영국에서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그 부분적 이행의 시기적 차별성에 기인한다. 두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이다. 실제로 통계에 나타난 네덜란드의 투자액은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감안하면, 프랑스가 투자점유율의 견지에서 세 번째의 순위를 점하게 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우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와 기타 다른 기업들의 무역업에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은 앞선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과 비교해볼 때, 투자규모나 제조업과 무역업 투자의 비율의 견지에서 중간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아일랜드이다. 이 그룹의 특징은 이태리를 제외하면, 제조업 투자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 무역업 투자의 비율이 낮은 그룹으로 시장보다는 생산에 초점을 둔 지역들이다. 네 번째 그룹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으로서 투자순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제조업 및 무역업 투자가 미미한 규모로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이러한 투자유치국들의 차별적인 그룹형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조화로운’ 유럽을 향한 ‘단일유럽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요새화’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역외 생산자들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는 관련 한국기업을 역내로 포섭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회원국내에 ‘이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지리적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질성은 한국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더불어 순위변동에 영향을 준 주요 동력이 되었다. 즉, 한국기업의 경우 초기 유럽에서의 투자실패경험, 저생산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입지이전,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역경제 변화, ‘사회현장’ 채택여부를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정치경제적 갈등, 유럽연합수준에서의 구조 기금(structural funds) 배분과 관련된 투자인센티브 패키지 등은 이러한 순위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유럽연합 직접투자를 도시 및 지역의 규모에서 보면, 투자분

포의 불균등성은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한국의 대유럽연합 무역업 투자의 경우, 한국의 투자는 유럽연합 내 역사도시들, 런던-암스테르담-파리-프랑크푸르트-밀라노를 축으로 하는 메트로폴리탄 성장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의 경우, 로레인(프랑스), 안스버그(독일), 북아일랜드(영국), 타인 앤 웨어(영국), 리스본(포르투갈), 카달로니아(스페인), 동베를린(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변지역(유럽연합 지역 GDP 평균 100달러 이하에 있는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방향의 차별성은 ‘방어적’ 투자라는 투자 성격의 동질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지역의 정체성에 있어서 유사성을 지닌다. 제조업의 견지에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유럽연합 개별지역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투자가 유럽연합 내 발전이 뒤쳐진 지역(objective 1 지역)이나 장기적 산업쇠퇴지역(objective 2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는 비록 임금수준은 다를지라도, 이들 지역의 장기적으로 누적된 대량실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경제 재생프로그램과 맞물려 있다.

한국기업과 투자유치지역의 경제적 정체성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방어적 투자와 주변지역의 결합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에서 외국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소위 ‘제도적 패키지’(institutional packages)라 일컫는 투자인센티브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럽연합 수준이나 개별 지역들의 수준에서 보면, 투자인센티브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투자인센티브는 그 원천의 많은 부분을 유럽연합의 구조 기금(structural fund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유럽연합차원에서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해 분배한 이 펀드가 각 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유럽연합 내 개별지역들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경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의 조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어적 투자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안정이 지역경제의 불안정성—특히 지방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의 전형적

인 사례는 한국기업들의 영국 주변지역으로의 투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영국 북동부 지역의 투자 사례는 앞서 언급했던 방어적 투자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성이 지방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결합되어 기업과 지역 모두 그들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제한된 경로만을 밟아가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87년 6월에 생산이 시작된 영국 빌링햄(Billingham)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전자공장은 약 10여 년 간 각기 다섯 개의 생산품목이 생산 및 중단을 반복하였다. 이 공장에서 가장 먼저 생산되었던 전자레인지는 1987년 6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그 해 말에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VCR이 전자레인지 생산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VCR의 생산도 채 2년을 넘기지 못하였으며, 이후 팩스 생산으로 대체되었다. 팩스 역시도 1년여 생산 뒤 중단되었고, 곧 컬러 TV로 생산이 대체되었다. 컬러 TV는 이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생산으로 약 8년여 지속되었으나 1999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인쇄회로기판 생산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생산의 불안정성은 1980년대 이후 영국 전체 노동시장의 특성인, 공급자중심의 경제정책에 기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 인용문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영국노동시장의 현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른 유럽국들과 비교해볼 때, 영국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각종 경제 사이클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불안정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사이클의 큰 진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조정이 철저히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 경기가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고용증대의 가속화/경기침체시에는 해고의 가속화(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해고통지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대한 실업수당은 지극히 적다)(Dunford, 1997: 264).

이와 같은 국가적 규모에서의 노동시장의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사례 지역인 영국 북동부와 서부지역의 지방노동 시장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저임금, 직업의 안정성 상실, 다른 착취적인 노동 조건. 이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을 구조적 실업과 취약한 경제성장에 시달려 온 영국 북부와 서부지역을 휩쓸고 있는 지방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대규모, 장기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 그것은 지방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공급을 풍부하게 만들었고,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의 대체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권력의 균형을 고용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Peck and Tickell, 2000, 153).

손쉬운 정리해고를 상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양적 유연성과, 가능하다면 그러나 장기 침체지역에는 철저한 법규로 내정된 채용의 지역주의(영국 북부지방에 있는 기업은 반드시 북부에 살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삼성은 이 지방 노동시장에서 부메랑효과에 직면하게 된다. 즉, 설립초기부터 실행된 손쉬운 정리해고는 결국 영국 북부에서는 더 이상 채용하고 싶은 ‘노동자’가 없는 ‘양적 한계’(Hudson, 1998: 22)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제품의 약한 최종시장지배력(낮은 브랜드 이미지)으로 인한 생산의 저부가가치,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저투자 및 지방노동시장의 저생산성은 투자표류와 더불어 공장노동자표류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삼성과 유럽 구산업지역의 결합의 견지에서, 삼성전자의 영국 북동부 공장의 불안정성은 (1) 영국 지방노동시장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저고용율/저생산성의 균형(Dunford, 1997)과 (2) 기업의 만성적 저생산성/숙련 및 기술에 대한 저투자의 균형이 결합한 결과이다(Jung, 2000).

5. 결론

유럽통합의 심화 및 확대 과정과 한국경제의 변화는 한국의 대유럽연합 투자에 있어서 각기 다른 지도를 창출했다. 세계화—지역화—지방화의 견지에서 한국의 대유럽연합투자는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금융위기 이전 한국투자는 유럽연합 및 개별지역으로 공격적인 지리적 수렴을 경험했다면, 위기 이후의 그것은 활발한 지리적 발산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비록 한국금융위기가 투자 및 입지 불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실제로 유럽연합 내 한국기업의 불안정성은 1980년대 후반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의 성격은 위기 자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 불안정성이 강화된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대유럽연합 한국해외 직접투자의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된다. 첫째, 한국기업들(가전기업)의 투자 성격이 유럽연합무역규제에 대응한 방어적 투자라는 것이다. 둘째, 유럽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방어적 투자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의 불안정성과 결합될 경우, 기업과 지역모두 그들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제한된 경로만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기업투자의 방어성을 극복하는 방안, 즉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방법들 중 하나는 유럽연합 내 한국기업의 경쟁력의 정체성을 기존의 가격경쟁력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전산업 투자에 국한해볼 때,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 중 하나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이며, 이를 통한 최종수요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일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의 컬러TV와 브라운관 시장점유율의 대조적인 모습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 확대의 견지에서, 몇몇 한국 주요기업들의 서유럽 회원국에서

동유럽 후보회원국들로 입지를 이전하는 것은 유럽통합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동유럽으로의 한국기업들의 이전은 주로 두 가지 요인들, 즉 동유럽국가들이 지닌 국가시장잠재력 및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용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입지이전은 동유럽후보국들의 서유럽연합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라는 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의 진입의 특성, 즉 방어적 투자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며, 향후 유럽 내에서 방어적 투자의 지리적 방향성에 대한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유럽통합의 확대는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의 경향에 또 다른 긴장의 축을 형성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는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에서 창출되는 역설의 지리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유럽을 향한 정책은 심화된 ‘이질성’ 속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성훈 sung_hoonj@hotmail.com

참고문헌

- Amin, A., D. Charles, and Howells. 1992,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hesion in the New Europe,” *Regional Studies* 26, 319-331.
- Dent, C. M. 1997, *The European Economy: The Global Contex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icken, P. 1994, “The Roepke Lecture in Economic Geography, Global-Local Tensions: Firms and States in the Global Space-Economy,” *Economic Geography* 70(2), 101-28.
- Dunford, M. and G. Kafkalas. 1992, “The Global-Local Interplay, Corporate Geographies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Europe,” in M. Dunford and G. Kafkalas(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The Global-Local Interplay and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London: Belhaven Press, 3-38.

- Dunford, M. 1997, "Divergence, Instability and Exclusion: Regional Dynamics in Great Britain," in R. Lee and J. Wills(eds.),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and New York: Arnold, 259-277.
- Dunning, J. H. 1993, *The Globalisation of Busin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uropean Commission. 1994, *Europe 2000+: Cooperation for European Territorial Development*.
- Heitger, B. and J. Stehn. 1990, "Japanese Direct Investments in the EC -Response to the Internal Market 1993?,"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29, 1-16.
- Hudson, R. 1998, "Restructuring Region and State: the Case of North East England,"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9(1), 15-30.
- Julius, D. 1990, *Global Companies and Public Policy*, London: RIIA/Pinter.
- Jung, S.-H. 1999a, "The Global-Regional Interplay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in Phelps, N. and Alden, J.(eds.), *FDI and the Global Economy: Corporate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Global-Localisation*,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and London Stationary Office, 87-102.
- _____. 1999b, "Entries and Exits: Case Studi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Chaebols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1&2), 145-67.
- _____. 2000, *The Global-Local Interplay: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Union*, Unpublished Dr.Phil. Thesis, The University of Sussex, Brighton, UK.
- Krum, J. R. 1991, "Europe 1992: Strategic Marketing Issues for American Multinationals," *European Business Journal* 3, 39-47.
- Ohmae, K. 1990, *The Borderless World*, London and New York: Collins.
- _____, 1993,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s*, Spring, 78-87.
- Peck, J. and A. Tickell. 2000, "Labour Markets," in V. Gardiner and H. Matthews(eds.), *The Changing Geography of the United Kingdom*, Routledge, London, 150-168.
- Phelps, N. A. 1997, *Multinationals and European Integration: Trade,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helps, N. and J. Alden(eds.). 1999, *FDI and the Global Economy: Corporate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Global-Localisation*,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and London Stationary Office.
- Shin, S.-H. 1998, *European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 The Case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Yannopoulos, G. N. 1989,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uropean Integration: The Evidence from the Formative Years of the European Community*, University of Reading discussion papers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search, no.35.
- United Nations. 1996, *World Investment Report: Investment, Trade and International Policy Arrangement*.

